



■ 전시 개요

전시명	Everything is one_Bloom		
작가명	김건주		
전시기간	2018.06.29 (금) - 2018.07.29 (일) / (전시오프닝:06.29(금), 7pm)		
전시담당	주최	Gallery Stan by ACNY	대표 송인지 010-2757-4217 inji@artconciergeny.com
	주관	Gallery Stan by ACNY	큐레이터 윤지수 010-2531-3429 irene.acny@gmail.com
전시장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30길 24, B1 갤러리스탠 / 대표전화 02-2038-0839		

■ < Everything is one_Bloom 展> ‘나의 모든것이 씨앗이 되어 꽃이 만개하는 그 순간’

갤러리스탠은 2018년 6월 29일 부터 7월 29일 까지 실크스크린을 이용한 작업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김건주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작업 전반의 기저에 있는 ‘Everything is one _모든 것은 하나’ 라는 메시지와 더불어 작가의 ‘나 다움’을 찾는 과정을 보여주는 실크스크린을 이용한 패브릭 작업과 세라믹작품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는 2017년 <Everything is one / Chapter.1 BASE>展의 연장선으로 ‘모든 것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통해 균형과 조화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면, 본 전시 <BLOOM>展 에서는 그 소중함을 나만의 토양으로 삼고 그 안에서 나다움이란 씨앗이 자라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는 여정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작가의 작업에서 볼 수 있는 4가지 패턴인 별, 사람, 나무, 바다는 작업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작가가 만들어낸 요소는 패턴화 되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은 모든 경험은 작은 요소로 이루어져 연결되어 있고 그 경험을 들여다보는 일련의 과정은 ‘나’의 깊은 내면에 한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합니다. 그 과정을 토대로 다듬어진 토양에서 ‘나 다움’이란 씨앗을 심었을때 전시의 제목처럼 꽃이 만개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나’의 내면에 자리하는 작은 요소들에 집중해보고 그대로의 나를 발견할때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찾게되는 순간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도, 부족한 부분을 감하지도 않은 온전한 저 마다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경험의 시작에 이번 전시가 함께하길 희망합니다.